

5·18 소재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사)빛고을문화예술위 주최 5·18 44주년 기념

5·18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 중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단연 독보적이다. 오라토리오의 중세시대 만들어진 음악극으로 독창·합창·관현악이 총집합한 음악 장르다. 나름의 등장인물과 스토리가 있어서 독창자들이 각 등장인물의 배역을 담당하고 오페라 보다 합창의 비중이 더 크다. 특히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민족 저항시인 문병란의 시를 기본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5·18 44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공연이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고문병란 시인은 생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시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 오면서 이를 모티브로 한 음악작품을 제작하고자 했다. 2000년 초에 완성된 14개 시에 음악을 붙여줄 작곡가를 찾던 중 빛

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저항시인 ‘문병란’ 시 토대로 합창·독창 등 형태로 음 붙여 10일간 항쟁 재연 14곡 구성

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의 이사로 있는 김성훈 작곡가와 연이 닿아 마침내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탄생하게 됐다. 문 시인이 시를 써내려간 후 2019년 첫 공연을 선보이기까지 20여년이 걸렸으며 끝내 공연을 보지 못하고 문병란 시인은 지난 2015년 타계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는 천안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구모영의 지휘 아래 이뤄진다. 또 광양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여수시립합창단 등 3개 합창단이 노래하고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소프라노 김선희,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정의근, 바리톤 김종표,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 작품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무대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제공

소년 한재연 등의 솔리스트들이 독창과 이중창 등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합창은 광주시민을 상징하며 각각의 솔리스트(소년, 구두담이, 아내, 남편)는 40여년전 오월 당시 죄없이, 힘없이 죽어간 이들을 대표한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총 14곡으로 구성된 교성곡이다. 제1곡 서곡

(아내의 노래)에서부터 절규와 함성으로 터져나오는 합창단의 외침이 무대를 장악한다. 특히 어린 소년의 죽음을 노래한 제3곡 ‘저는 그냥 죽었어요’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극적인 시어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제5곡까지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꽃넋으로 표현하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5월의 영혼들을 노래한

다. 제6곡 ‘전라도 뼈뿌기’에 이어 제7곡 ‘부활의 노래’에서는 죽음을 넘어서,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부활의 노래로 다시 돌아온다는 합창곡이 이어진다.

제8곡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일체감이여’는 5·18의 신념과 미래의 염원이 한 곡에 담겨있다. 이어 희생자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제9곡과 연인의 이중창 제10곡,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결연의 의지를 담은 제11곡, 그리고 ‘자유와 민주와 산 무등산’을 노래하는 제12곡, 어두웠던 역사에서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 ‘무등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제13곡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14번째 곡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빛고을은 평화의 깃발이고 새벽에 오시는 연인이고, 그 빛들이 모여 민족통일의 찬란한 노래로 넘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문의는 (010-2499-5035)로 가능하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라인문화재단에서 1억원의 후원을 받았다.

도선인 기자

5월의 우주에서 달의 상흔 ‘크레이터’ 관측해볼까?

광주과학관 야간천체관측 16·17일 별빛학교 등 진행

국립광주과학관은 5월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별빛전문대에서 별빛학교와 밤하늘 관측대장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별빛학교’는 별빛전문대의 대형 망원경을 포함한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활용해 체험중심의 천체관측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16일에 운영된다. 밤하늘을 옮겨놓은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여행을 하며 별자리를 찾아보고, 직경 1.2m의 거울을 가진 반사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를 직접 관측해 볼 수 있다. 크레이터는 달표면에 보이는 원형 구덩이를 뜻한다. 크레이터는 주로 운석 충돌에 의해 형성된다. 참여 비용은 개인당 1만2000원이다.

‘밤하늘 관측대장’은 천체망원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망원경을 사용해 보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에 운영된다.

참가자는 천체망원경을 직접 설치하고 망원경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체를 촬영하고 직접 찍은 천체사진을 인화해 추억으로 담아갈 수 있다. 참여 비용은 팀당 3만원이다

두개 프로그램 모두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별빛전문대 야간천체관측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되며, 2024년 별빛전문대 연간 운영 일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www.science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성의 경계 허문 남성창극 ‘살로메’ 공연

30~31일 예술극장 극장1 스타소리꾼 김준수 등 출연 욕망에 뒤틀린 헤로데 왕가

남성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세기의 요부(妖婦) ‘살로메’가 전통예술 장르 창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우수공연 초청 프로그램인 ‘ACC 초이스’ 두 번째 작품으로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예술극장 극장1에서 남성창극 ‘살로메’를 무대에 올린다.

‘살로메’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공주로, 아일랜드 출신 작가 오스카 와일드 동명 희곡의 주인공이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남성창극 살로메’는 세례자 요한을 사랑한 공주 살로메와 이를 둘러싼 헤로데 왕가의 뒤틀린 욕망 등 사랑에 눈이 먼 인간 군상을 극단적으로 풀어낸다.

유대의 공주인 살로메는 예언자 요한을

사랑하고, 호위대장 나라보스는 살로메를 사랑한다. 헤로데왕은 의붓딸인 살로메를 사랑한다. 공주 살로메는 요한을 보고 첫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그에게 무시당한다. 자존심이 상한 살로메는 양부인 헤로데왕 앞에서 선전적인 ‘일곱 베일의 춤’을 추고 그 선물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팜파탈인 살로메를 소재로 하지만 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두 남성으로, 성(性)의 경계를 허문 ‘크로스젠더(cross-gender)’ 작품이다. 또한 원작에서는 살로메의 못된 성품만을 집중하지만, 창극에선 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집착과 욕망 등을 조명한다.

출연진 또한 화려하다. 스타 소리꾼 김준수와 유태평양, 김도완, 고준석, 서의철, 이정원, 정승준 등이 무대에 오른다.

국내 최고의 연출가들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번 작품을 위해 힘을 보탤다. 뮤지

컬 ‘광주’로 친숙한 고선웅 작가가 각색하고, 한국무용 전공자 출신인 김시화 씨가 연출을 맡았다. 국립극장 여우락 예술감독이자 서울예대 교수인 이아람이 음악감독을, 김현섭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한다.

또한 아쟁 연주자 김슬지와 첼리스트 이호찬, 피리 차승현, 가야금 황소라, 타악기 조한민-신승훈 등 실력있는 연주자들이 함께해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극의 몰입감을 더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이 의상디자인을 맡았다. 살로메의 의상들은 인물의 특징과 성격이 드러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동서양이 어우러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다는 콘셉트에서 등장인물의 의상에 주목되고 있다.

남성창극 ‘살로메’는 5월 30일과 31일 오후 7시 30분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티켓은 ACC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영원한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발자취

한진수 사진전 ‘5·18+1’ 17일까지 자미갤러리

광주 복구 자미갤러리는 5·18 최후 항쟁에서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진전 ‘5·18+1’을 오는 17일까지 연다.

이 전시는 두 가지 주제 ‘195·1819’와 ‘5·18+1’을 담아내고 있다. ‘195·1819’는 지난 10년간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를 주제로 작업해 온 사진 가운데 주요 핵심 60여 점을 선보이는 한진수 작가의 사진전으로 이뤄진다.

특히 ‘195·1819’는 윤상원 열사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인 1951년 8월 19일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5·18+1’은 그날을 알리려 했던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말처럼 후세에게 5·18을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5·18+1’의 특별한 점은 한진수 씨의 사진 작품 이외에도 5·18과 직간접적 관계성을 가진 3명의 여성 작가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윤상원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태어난 천동마을, 광천동 시민아파트,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등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곳에서 △한진수(그 장소에 있었지만 없었던) △추현경(그 시대에 살았지만 몰랐던) △정민수(5·18 유공자의 딸) △유다은(교육을 통해 5·18을 알게 된) 네 명이 서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18분 가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전시했다. 세대가 다른 각각의 시선에서 바라본 5·



한진수 작 광천동 시민아파트 전경.

18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진수 작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는 윤상원 열사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힘닿는 그날까지 사진 찍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이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구 동명이인갤러리에서도 이어진다. 도선인 기자

